

2013 봄

KazNKS

# 카자흐스탄 한국학네트워크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

발행일: 2013.04.30



## 카자흐스탄 단신

카자흐 경제대 (p.14)

카자흐 국립대 (p.15)

제트수 국립대 (p.15)

알마티 한국교육원 (p.16)



Center for Korean Studies, KazUIR&WL  
 Tole bi 84, Almaty, Kazakhstan  
 Homepage: <http://www.kaznks.kz>  
 E-mail: [cks@ablaikhan.kz](mailto:cks@ablaikhan.kz)

## 2013 한국학올림피아드 개최

2013년 3월 29일(금) - 30일(토) 이틀에 걸쳐 카자흐스탄 한국학올림피아드가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어문학(Korean Philology) 부문의 1위는 누르페이소바 M.(카자흐 국립대), 한국어(Korean Language) 부문의 1위는 잔비르바예바 A.(본교)가 차지했다. (관련기사 p.10)

## 주요 소식

한국학센터 개원	학술지 발간	KF 장학금 전달
(관련기사 p.11)	(관련기사 p.12)	(관련기사 p.12)
2012년 10월 9일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가 개원식을 가졌다.	2013년 2월 28일 한국학센터에서 <카자흐스탄 한국학> 창간호를 발간하였다.	2013년 1월 22일 대사관(알마티분관)에서 KF 대학원생펠로십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다.

## 2013 한국학올림피아드



2013 카자흐스탄한국학올림피아드가 3월 29일(금)~30일(토) 이틀에 걸쳐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총장 살리마 쿠난바예바)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어문학부문(Korean Philology)과 한국어부문(Korean Language)으로 나누어 알마티, 아스타나, 타라즈, 침켄트, 탈디쿠르간, 우스티카메노그르스크 등 6개 도시 10개 대학에서 41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하여 실력을 겨루었다.

이번 행사는 카자흐스탄 교육부가 주관하는 카자흐스탄 대학생외국어올림피아드(Kazakhstan Republican Student Olympiad in Foreign Languages)의 일환으로 열렸다. 한국어를 비롯하여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아랍어, 터키어, 페르시아어, 중국어 등 8개 언어에서 어문학, 통번역, 제 2외국어 3개 영역 24개 부문에 걸쳐 400여 명의 대학생이 참가한 본 대회는 카자흐스탄 최대 규모의 대학생 언어경시대회이다.

본교 학술부총장(알미라 나우리즈바예바)의 진행으로 열린 전체 개회식(3월 29일, 제 1관 대강당)에는 각국의 총영사, 문화원장, 교육원장 등이 이번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하였고, 한국어부문은 김지만 영사(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 알마티분관), 이견호 원장(알마티 한국교육원)이 축사를 하였다. 전체 개회식을 마치고 언어별로 대회가 진행되어 어문학부문과 한국어부문의 문법, 어휘론, 문학, 문화 등의 테스트와 작문이 실시되었다.

### 한국학올림피아드에 6개 도시, 10개 대학, 41명 참가.

둘째 날, 어문학부문은 김지만 영사, 박 벨리(본교 한국학센터 소장), 장호중(한국국제교류재단 파견교수), 이영우(카자흐 국립대), 이재호(알마티 한국교육원, 세종학당)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문화와 언어: 정보화시대의 언어’라는 주제로 발표한 참가자들의 프레젠테이션을 심사하였다. 한국어부문은 이견호 원장, 김 울리야나(본교), 최미옥(카자흐 국립대), 안 립마(카자흐 경제대), 김세령(알마티 한국교육원, 세종학당)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카자흐스탄의 한류’ 등의 주제로 진행된 참가자들의 말하기를 심사하였다.

심사 결과 어문학부문의 1위는 메루예르트 누르페이소바(카자흐 국립대), 한국어부문의 1위는 아이게림 잔비르바예바(본교)가 차지하였다. LG 전자의 협찬으로 스마트폰이 부상으로 주어져 입상자들은 수상의 기쁨이 더욱 컸다. 30일 오후 제 1관 대강당에서 언어별 시상식을 끝으로 대회를 마쳤다.

참가자격을 한국어문학 전공생으로 제한한 지난해와 달리 한국어부문을 신설하여 한국어를 공부하는 대학생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후원으로 이번 대회에는 카자흐스탄의 여러 도시에서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었다. 또한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 분관(총영사 손치근)과 알마티 한국교육원의 지원 하에 명실공히 카자흐스탄 최초의 전국 규모 한국학 경시대회를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탈디쿠르간에서 참가자들을 인솔하여 대회에 참석한 한국어교사 박 타티야나(제트수 국립대)는 타 도시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참가의 기회가 부여되기를 희망하였다. 비록 입상하지는 못했으나 아스타나에서 20시간을 기차로 이동하여 대회에 참가한 참가자들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본교 한국학센터는 참가자들의 열기를 반영하여 내년에는 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3.03.30)





## 566 돌 한글날 기념 및 한국학센터 개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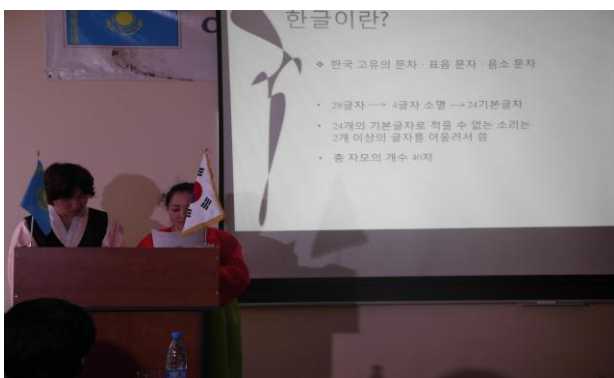
2012년 10월 9일(화)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동양학부캠퍼스 202호, Tole bi str. 84)가 개원식을 가졌다. 566돌을 맞은 한글날에 열린 이 행사에는 손치근 총영사(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 이견호 원장(알마티 한국교육원), 알미라 나우리즈바예바(본교 학술부총장), 예르나르 우시케노프(본교 동양학부장) 등이 축사를 하였고, 김 류드밀라(알라타우전문대 학장), 최미옥(카자흐 국립대) 등이 참석하여 한국학센터 개원을 축하하였다.

이어진 인사말에서 박 넬리 소장은 한국학센터 개원 소감과 향후 운영 방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선 한국학센터 개원식에 참석하여 좋은 말씀을 주신 손치근 총영사님, 이견호 원장님께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본교 총장님, 부총장님을 비롯하여 학교 관계자분들도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본교에서는 1993년에 제 2외국어로서 한국어 강의가 시작되었고, 1998년에 한국학과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어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지난 20여 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어교육의 차원을 넘어 본격적인 한국학 연구와 교육을 하기 위하여 한국학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한국학이 성숙하는 기반을 갖추어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적인 한국학 연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본교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한국국제교류재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한국학센터 사업은 장호중(한국국제교류재단 파견교수), 한 넬리(본교)의 프레젠테이션에서 구체적으로 소개되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재개발(비교문화 1, 한러 러한 통번역입문), 온라인강의, 한국학올림피아드, 연구 분야에서는 한국학학술지, 한국학뉴스레터, 전자연구자료실, 교류 분야에서는 카자흐스탄 한국학자 D/B 구축, 한국학포럼, 대학(원)생학술발표회, 한국학학술대회 등의 사업이 진행된다.

내적으로 한국학의 연구체계를 확립하고 한국학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한국학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외적으로 한국학의 성과를 보급하는 한편, 카자흐스탄 한국학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여 한국학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카자흐스탄의 한국학 진흥에 앞장 서게 될 것이다. 이미 “연구체계 확립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카자흐스탄 한국학의 확산”을 과제명으로 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총 1억 5천만원(연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학술활동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부족한 예산을 충당해나갈 예정이다.

KazUIR&WL 에는 현재 한국학 교수 13명(현지인 9, 한국인 4)이 재직 중이며, 전공과 제 2외국어로 300여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수강하는 등 한국학의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으므로, 한국학센터는 카자흐스탄의 한국학이 한국어 습득을 넘어서 더욱 심층적인 연구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글날을 기념하여 본교 한국학과 4학년 학생들의 ‘한글과 세종대왕’이라는 프레젠테이션이 이어졌으며, 26회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자들에 대한 시상으로 행사는 끝을 맺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카자흐스탄 한인사회의 소식지는 물론, 연합뉴스(이희열 알마티 특파원)에 소개되었고, 국영 TV “카자흐스탄”의 ‘우리 민족 - 고려인의 삶’과 고려일보를 통해 현지 사회에 전해졌다. (2012.10.09)

## 학술지 발간

### <카자흐스탄 한국학> 창간호

2013년 2월 28일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는 한국학 학술지 <카자흐스탄 한국학> 창간호를 발간하였다.

창간호에는 한국,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체코, 네덜란드 등 6개국 한국학자들의 논문 36편이 수록되었다.



### 박 넬리 교수 고희기념

특히 창간호는 카자흐스탄 한국학의 개척자 박 넬리 교수 고희기념으로 제작되어 더욱 의의가 크다.

박 넬리 교수는 1993년 본교에서 제 2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좌를 실시하였으며, 1998년 한국학전공이 설치되면서 초대 학과장으로 부임하였다.

2012년 10월에는 한국학센터를 개원하면서 초대 소장으로 부임하는 등 20여년간 본교에서 한국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 카자흐스탄 교육부 선정 최우수교원상을 수상하였고, 2011년 대한민국 정부 한글유공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2013.02.28)

## KF 대학원생 펠로십

**KOREA KF FOUNDATION**

한국국제교류재단

2013년 1월 22일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 알마티분관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한국전공대학원생 펠로십”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다. 한 넬리(본교 박사과정), 전 엘레나, 이 타티야나(이상 석사과정)가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손치근 총영사로부터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 받았다. (2013.01.22)



## 설날 한국문화체험

2013년 2월 9일 설날을 맞아 본교 한국학센터에서 “문화체험: 한국음식 만들기” 행사를 가졌다.

본교 재학생들이 본교에 교환학생으로 와 있는 한국의 대학생들과 함께 김밥과 부침개 등을 만들며 한국 문화에 대한 직접 체험의 기회를 가지는 기회가 되었다.

(2013.02.09)



## 본교 한국학과,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 선정

2012년 6월 28일(목)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은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 최종선정기관을 발표하였다.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은 “해외 한국학 기관의 한국학자 지원, 육성 및 지역별 한국학자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한국학의 소프트파워(soft-power) 강화와 해외의 한국학 교육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운영하여 한국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세계 30여 대학이 신청하여 16개 대학(서유럽 3, 동유럽 3, 아시아 6, 중앙아시아 2, 아프리카 1, 중남미 1)이 선정되었고, 카자흐스탄에서는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총장 살리마 쿠난바예바) 한국학과가 포함되었다.

본교 한국학과(학과장 박 넬리)는 “연구체계 확립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카자흐스탄 한국학의 확산”을 과제명으로 하여 온라인강의 개설, 온라인자료실 구축 등 교육환경 개선과 한국센터 설립, 학술지 발간, 교재 개발 등 연구능력 배양 및 한국학자 D/B 구축, 뉴스레터 발간, 올림피아드, 학술대회 등 한국학 확산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한국학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은 본교 한국학과에 올해 7월부터 3년간 총 1억 5천만원(연 5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학센터를 설립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둘 경우에는 이후 3년간 지원 연장도 가능하다.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심사소견서에서는, “연구책임자(박 넬리 교수)의 연구 업적이 탁월하고 대내외 명망이 높으며, 신청기관의 한국학 기반이 튼튼하여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의 취지에 걸맞은 사업 계획들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한국학이 한국어 습득을 넘어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전방위적 교류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여, 본교 한국학과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실제로 본교에는 현재 한국학 교수 11명(현지인 8, 한국인 3)이 재직 중이며, 전공과 제 2외국어로 250여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수강하는 등 한국학의 기반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 재정적인 지원이 따른다면 본교 한국학과는 한국어교육 및 한국학에서 우수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본교 한국학과를 설립한 학과장 박 넬리 교수는 사업선정 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본교 총장님을 비롯하여 학교 관계자분들께서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내년엔 한국학과 설립 15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번 사업 선정은 학과 설립 이후 가장 큰 경사입니다. 그간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과의 교수들과 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학에 매진한 결과입니다. 학과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본교의 한국학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카자흐스탄의 한국학이 성숙하는 기반을 갖추어 수 있도록 학과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항상 학과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이견호 원장님과 이번 사업계획 전반을 기획한 장호종 교수님(한국국제교류재단 파견교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편, 이번 사업 선정에는 현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었다. 지난 3월 28일-30일 한국학진흥사업단(부단장 이인철, 행정사무관 김규호, 선임연구원 강문중)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카자흐 국립대 등 현지 대학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학의 사업비중앙관리 불가, 연구자의 연구성과 발표 기회 제약 등 현지 한국학의 어려운 상황이 논의되었다.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사업설명회를 주선하고 교육원을 통한 사업비중앙관리 대행의 대안을 마련하는 등 카자흐스탄 교육기관의 한국학 발전과 확산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인 알마티 한국교육원의 이견호 원장은 본교 한국학과에 사업 선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제 카자흐스탄에서는 한국어를 뛰어 넘어 한국학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선정이 갖는 의미는 크다. 이제 시작이지만 한류 및 한국에 대한 관심이 이제는 학문적으로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 사업은 장기간의 사업으로 안정적인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역량 있는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의 한국학에 대한 연구 활동이 기대된다.” (2012.07.05)

## 학술대회 개최

2012년 12월 7일 한국학센터 개원 및 박 넬리 교수 고회 기념 국제학술대회가 본교에서 개최되었다.

“현대 사회의 이중언어 사용: 연구, 교육, 문화”를 주제로 진행된 본 학술대회에는 한국,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에서 60여 명의 학자들이 참가하였다.

(2012.12.08)



# 카자흐 경제대 카자흐스탄-한국 교육협력센터



카자흐스탄-한국 교육협력센터는 카자흐 경제대와 한국 강남대의 협약에 의해 2006년에 세워졌다.

주요 활동: 국제 협력 및 학생 양성

센터장: 역사학박사 안 림마. 2006년 서울 연세대 한국어학당 수료.

센터는 여러 기관들(중앙아시아 어학문화연구센터, 한국의 대학들)과 한국문화에 관련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는 카자흐경제대 학생 및 교수를 대상으로 다양한 강의를 개설하고 있다.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 이양구 영사가 “한국-카자흐스탄: 협력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였고, 국민은행 대표가 “한국의 은행시스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알마티무역관 김준훈 대표가 “카자흐스탄에서의 한국사업 발전”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 알마티분관 김지만 영사가 카자흐 경제대에서 열린 “Tolerance in the system of international relations” 회의에 참석하였다.

카자흐경제대 대학생들은 매년 설날, 삼일절 기념 행사, 한카 페스티벌에 참여하여 알마티 한국교육원에서 매년 이루어지는 대학생 행사에 참여한다.

또한 학생들은 매년 알마티 LG 공장에 견학을 한다.

(2013.04.15)



올해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인어대에서 열린 한국학올림피아드 한국어부문에서 2위를 차지하였다.



## 제트수 국립대: 한글학교 «아침노을» (탈디쿠르간)

한글학교 '아침노을'은 박 타티야나(제트수 국립대)의 노력으로 2010년 탈디쿠르간에 설립되었다.

최근 한국 드라마와 음악은 고려인들뿐 아니라 다른 민족들,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현재 제트수 국립대와 국민특수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글학교 '아침노을'에서도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학생들은 한국어뿐 아니라 한국전통문화를 접하면서 배우고 있다. 남 갈리나의 지도 하에 '아침노을' 무용단에서 한국춤을 배우고 있다. 무용단에서 한국춤을 배운 학생들은 다양한 명절기념 행사에 참여한다. 한글학교에서는 정기적으로 '한국문화의 날'이라는 행사를 하며 이 때 학생들은 김밥만들기, 옷놀이 대회 등을 한다.



매년 여름 한글캠프를 통해 학생들은 한국어와 한국노래를 배우며, 한국전통동화를 바탕으로 연극을 하고 한국영화를 접할 기회를 갖는다. 학생들은 학년별로 다양한 대회를 한다. 여름한글캠프는 학생들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고, 일년동안 배운 한국어를 자랑하고 배운 지식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다.

한글학교 학생들은 설날, 추석, 단오, 보름과 같은 한국명절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열심히 배워서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갖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2013.04.15)

## 카자흐 국립대 단신

2012-2013년 한국어 및 일본어학과 주요 소식

- 2012년 9월 23일-30일. 제2회 국제인형극축제(알마티)에 히디켈 A., 압두알리에바 A., 누르갈리에바 N., 노루소바 K.(3학년) 자원봉사자 참여.
- 2012년 10월 24일-25일. 국제학술대회 “중앙아시아와 한국: 현황과 협력 전망” 한국어학과 학생들 참가.
- 2012년 10월 28일. 알마티 한국교육원에서 진행된 한국전통음식만들기 대회에 참여하여, 1, 2, 3위 차지.
- 2013년 2월 18일-23일. 동양학부에서 “한국학 및 일본학 주간” 개최. 2월 19일 한국어학과에서 ‘한국을 아십니까’, 2월 22일 “JK Fest”를 개최하여 카자흐스탄-한국-일본의 문화를 비교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국과 일본의 전통음식(초밥, 김밥, 떡볶이 등) 시식회가 있었다.
- 2013년 3월 1일. 2-3학년 학생들이 한국문화 대학대항전 «나와 한국»에서 1위를 차지.
- 2013년 3월 7일. 한국어학과는 한양대와 협력하여 «Global e-school Program» 실시. 정치, 경제, 국제관계, 한국 전통 및 한국어 관련 온라인 강의 및 세미나 진행. 러시아 동방국립대, 카자흐 국립대, 한양대 참여. 현재 통번역학과 한국어문학과 3학년 대상으로 비즈니스 한국어, 한국 사회정치 강의 진행. 강의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
- 2013년 3월 28일 동양학전공 1-3학년생들 카자흐스탄 대학생 올림피아드에 참가.
- 2013년 3월 29-30일 외국어문학 전공 2-4학년생들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에서 개최된 «2013 카자흐스탄한국학올림피아드»에 참가.
- 2012년 9월부터 3학년대상으로 대학생도우미 start-up company 실시.

카자흐 국립대 한국어 및 일본어학과 학과장  
쿠다이베르게노바 R.E.

(2013.04.15)

## 알마티 한국교육원

### 제 30 회 한국어능력시험

2013년 4월 21일 알마티 한국교육원에서 제 30회 한국어 능력시험(TOPIK)이 실시되었다.

알마티 한국교육원 이견호 원장은 “카자흐스탄 전체 응시자가 417명”이고 “한류에 힘입어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에서는 매년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한국어능력시험이 시행된다. (2013.04.22)



### 2013년 한국어강좌 개강식

2013년 2월 1일 “한국어강좌 개강식”이 알마티 한국교육원에서 열렸다.

이견호 원장은 “금번 학기는 교육원 설립 이래 가장 많은 숫자인 900여 명의 학생들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연극반, K-POP 동호회, 봉사활동, 신문제작, 사진반 등 다양한 동아리를 개설하여 한국어뿐 아니라 다양한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알마티 한국교육원은 올해 1학기 22명의 교사로 42개 반의 한국어강좌를 운영한다.

(2013.02.02)



### 제 3 회 K-POP 경연대회 예선

2013년 4월 13일 주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이 주최하는 “제 3회 K-POP 경연대회” 예선이 알마티 한국교육원에서 열렸다. 98개 팀 300명의 지원자가 몰려 카자흐스탄의 한류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대회 심사위원장인 안창현 교수(카자흐 국립예술아카데미)는 한국 드라마로 시작된 카자흐스탄의 한류가 가수 사이의 “강남 스타일”로 더욱 뜨거워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2013.04.15)